

## 중년기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생성감의 매개역할

김 금 운 ·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일제(full-time)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62명의 중년기 기혼여성들을 상대로 생활만족도 및 생성감과 이들을 설명해 주는 다중역할 특성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역할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계 및 매개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또 그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회로모델을 도출하였다. 모델에 따르면, 가계생활수준이나 직업만족도, 친밀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드러났다. 반면 아내 역할과 가정경제 기여도는 생성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그리고 결혼지속기간과 학력 및 어머니 역할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의 인구분포에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은 1995년 전 인구의 23.4%를 차지했으며, 또 기혼여성 1인당 자녀수는 평균 2.3명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곧 기혼여성들의 가족내 역할을 고려할 때, 그들의 생활만족의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인구의 수는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만족은 학문의 세계에서나 실사회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기혼여성들의 정체감을 단순히 남편의

내조자나 자녀들의 양육자로만 한정시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생발달을 강조하는 학문적 시각이 대두하면서 중년기도 일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년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중년기 여성들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장면에서의 적응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었다(김현화·조병은,

1992; 박경숙·김명자, 1991). 다시 말하면, 그 연구들은 중년기 여성의 성 역할 정체감이나 성격 특성 등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중년기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개인적 특성만을 토대로 중년기 적용문제를 논의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적응이나 만족도는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하 다중역할)에 관련된 특성들과 연관시켜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권보다 평균수명이 높은 서구 문화권에서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여성의 역할개입(role involvement)이 그들의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다중역할개입이 그들의 심리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으며 (enhancement hypothesis; 예, Pietromonaco, Manis, & Frohardt-Lane, 1986), 이와 반대로 역할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scarcity hypothesis; 예, Gerson, 1985; Reifman, Biernat, & Lang, 1991). 또한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입된 역할의 수가 아니라 그 역할들과 관련된 경험의 질이라는 입장도 있다 (Barnett & Baruch, 1985; Baruch & Barnett, 1986). 특히 그 경험의 질을 강조하는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역할이더라도 수행하는 여성에 따라서 그 의미와 질은 다르다.

## 생성감(generativity), 여성의 다중역할 및 생활만족도

Erikson은 생성감을 생산성(productivity) 및 창조성(creativity)이라고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예술 작품이나 저서를 출간하는 일,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노약자를 부양하는 일, 직장에

서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일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Erikson, 1950, 1968). Kotre(1984)는 나중에 이러한 생성감의 내용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즉,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생물학적(biological) 생성감 및 부모역할(parental) 생성감, 유형물을 창조하는 기술적(technical) 생성감, 그리고 후세대에게 전통이나 관례 등을 전수시키고 발달시키는 문화적(cultural) 생성감이 그것들이다.

Kotre는 그 네 가지 생성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부모역할 생성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연구결과들은 자녀들의 심리적·생리적 욕구충족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Cassidy, 1988; Tronik, 1989). 이와 같이 부모역할에 대한 비중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높기 때문에 성인기 중기에 해당된 개인들의 생성감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보다도 여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MacDermid, Heilbrun, & DeHaan, 1997; Peterson & Klohnen, 1995; Peterson & Stewart, 1996). 사회구조가 복잡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여성의 생산성을 이해할 때 단순히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시켰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성인들의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생산성은 결혼이나 고용의 맥락까지 포함되었다. 곧 Erikson의 생성감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적용될 경우 부모는 물론 배우자나 직장인 역할에서의 생산성까지 적용된다 (MacDermid 등,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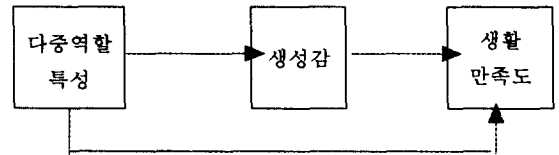
Erikson(1950, 1968)이 설명하는 발달과정에 따르면, 생성감 대 침체감(generativity vs. stagnation)의 형성은 성인기 초기단계에서 형성된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의 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친밀감 대 고립감의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사람은 생성감 대 침체감의 위기를 잘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McAdams 등은 35세에서 49세 사이의 중년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생성감이 친밀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McAdams, Ruetzel, & Foley, 1986).

Erikson의 발달 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 내용들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연구들은 중년기 여성의 생성감이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Constantinople, 1969; DeHaan & MacDermid, 1995; MacDermid 등, 1997; McAdams, St. Aubin, & Logan, 1993; Reimanis, 1974; Wessman & Ricks, 1966). 그러나 생성감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는데 국한되고 있다. 반면,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할 때 다중역할 개입과 관련시키거나 생성감의 매개역할을 살피었던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여성들의 다중역할 특성들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직접 및 간접적인 효과를 살핀 연구는 별로 없었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연구들은 생성감이 단순히 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수행이나 역할의 수가 생성감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보여 주었다 (Helson, Elliot, & Leight, 1990; Vandewarter, Ostrove, & Stewart, 1997).

중년기의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을 위한 아내 역할, 자녀를 위한 어머니 역할, 또한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돌보는 역할 등 다중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rikson, 1950; Havighurst, 1972). 그렇지만 그들이 어느 역할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또 그 역할의 질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의 다중역할 특성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Barnett & Baruch, 1985; Baruch & Barnett,

1986). 본 연구가 실시되기 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한국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상당수 여성들은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역할마다 비중이 다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역할(아내, 어머니, 직장인)을 수행하고 있는 중년기 여성들을 상대로 다중역할의 특성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역할수행과 같은 관계는 <그림1>처럼 일방향으로 인한 생성감(generativity)이 그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unidirectional, recursive)모델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다중역할 특성과 생성감,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상적 모델

본 연구의 관심사는 직장생활을 하는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다중역할 특성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후자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역할을 살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다중역할의 특성이란 아내역할에 대한 평가(이하 아내역할), 어머니역할에 대한 평가(이하 어머니역할), 직업만족도, 다중역할 수행시의 역할의 비중(이하 자신 중심의 역할비중), 가정경제 기여도, 직업지속기간 등을 말한다. 또 여기에서 자기 중심의 역할비중이란 아내,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역할 등의 다중역할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을 중심으로 그러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아내 역할 및 어머니 역할 변인은

조사대상자 자신이 아내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직업만족도는 직장생활이 조사대상자 자신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가정경제 기여도는 이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자신의 가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나타낸다. 또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의 하나로 Erikson 이론에서 생성감이 발달하기 이전의 성격특성인 친밀감이 포함되었다.

## 연구 방법

###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262명의 전일제(full-time)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들이었다. 연구의 특성상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직장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자녀가 아직 없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별거·기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남편과 동거하지 않거나, 또는 출가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표집에서 제외시켰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은 직업의 종류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사, 공무원, 그리고 간호사로 국한시켰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0.6세 ( $SD = 6.3$ )이었으며, 최소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들은 전체의 87.4%를 차지하였다. 가계생활수준(SES)은 낮다고 지각한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5.0% ( $n = 13$ ), 중간으로 지각한 대상자가 80.1% ( $n = 210$ ), 그리고 높다고 지각한 대상자가 14.9% ( $n = 39$ )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14.4년 ( $SD = 6.9$ )이었으며, 자녀의 수는 평균 2.1명 ( $SD = 0.7$ ), 그리고 첫째 자녀의 나이는 평균 13.3세 ( $SD = 7.0$ )이었다. 조사 당시까지 직장생활을 한 평균 기간은 16.7년 ( $SD = 7.7$ )이며, 표집에 대한 기타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조사도구

조사대상자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 친밀감 척도, 생성감 척도, 그리고 생활만족도 척도를 포함하는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개인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나이, 학력, 가계생활수준(SES), 결혼기간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다중역할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특성.** 가계생활수준은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매우 낮은 편이다”부터 9 = “매우 높은 편이다”까지). 다중역할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자신중심의 역할비중, 어머니 및 아내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자녀양육부담, 직업만족도,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이었다. 자신 중심의 역할비중은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자신의 생활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나보다 남편이나 자녀를 위주로 생활한다”에서 9 = “남편이나 자녀보다 나를 위주로 생활한다”까지이며, 5는 자신이나 남편, 자녀에 대한 비중이 거의 같다는 차원이다).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것이었다 (1 = “매우 잘 못하고 있다”부터 9 = “매우 잘 하고 있다”까지). 아내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도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내역할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를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매우 잘 못하고 있다”부터 9 = “매우 잘 하고 있다”까지). 한편 자녀양육 부담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든가에 대해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전혀 힘들지 않다”부터 9 = “매우 힘들다”까지).

직업만족도는 직장생활이 자신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부터 9 = “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조사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통해 벌어들인 조사대상자 본인의 수입이 가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Likert식 9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나의 수입이 없어도 가정경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부터 9 = “나의 수입이 없다면 가정경제는 매우 힘들어 질 것 같다”까지). 자신과 남편, 자녀들의 건강은 각각 동년배들과 비교한 주관적 평가를 Likert식 9점척도로 하도록 하였다 (1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부터 9 = “매우 건강한 편이다”까지).

**친밀감 척도 (Intimacy Vs. Isolation; IVI).** 본 연구에서는 8문항으로 구성된 Ochse와 Plug(1986)의 친밀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체감(identity)이나 생성감(generativity)을 측정하는 척도와 상관이 매우 높았는데 (Ochse & Plug, 1986), 이는 이전단계의 긍정적 결과(예, 정체감)는 다음 단계의 긍정적 결과(예, 생성감)를 예견할 수 있다는 Erikson의 주장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과의 상관이 0.3이하인 한 문항(“나는 누군가와 완전하게 일치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을 제외시킨 후 7문항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Likert식 7점척도이었는데 (1 =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9 = “매우 그렇다”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0.72 ( $n = 262$ )이었다.

**생성감 척도 (Loyola Generativity Scale; LGS).** McAdams와 de St. Aubin(1992)의 생성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LGS는 생산적 관심(generative concern)의 개인차를 평가하는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었다. 이 척도는 생성감에 관한 이론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영역들을 담고 있는데, 후세대에게 지식과

기술의 전수,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공헌, 오랫동안 기억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영구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관심, 타인에 대한 배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대한 강조 등이다. LGS는 기존의 다른 생성감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Ochse & Plug, 1986; Hawley, 1985).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과의 상관이 0.3이하인 두 문항(“만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입장을 하였을 것이다”, “사회는 집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먹고 쉴 곳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을 제외시킨 후 18문항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Likert식 7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 =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9 = “매우 그렇다”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생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0.87 ( $n = 262$ )이었다.

**생활만족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WLS는 전체적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7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 =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9 =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Suh, 1994; Shao, 1993; Balatsky & Diener, 1993). 본 연구에서 보인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0.82 ( $n = 262$ )이었다.

## 자료 수집 절차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는 문항들의 순서가 조사대상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조정되었다. 자료수집은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해 설명 받은 제3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설문

지를 전달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는 반응편파(response bias)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설문지의 전달과 수거를 담당한 제3자는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3자 1인에게는 평균 10부씩의 설문지를 의뢰하였는데, 전달된 290부의 설문지 가운데 267부가 회수되었으며, 또 설문지 전달에서 회수까지에 소요된 기간은 대부분 1주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 중 재혼한 여성으로 남편과 전 부인사이에 낀 자녀를 기르고 있는 경우( $n = 5$ )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이들의 어머니 역할은 친자에 대한 어머니 역할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결 과

###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변인 및 상관관계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들과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여러 가지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는 <표 1>, 그리고 그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자신 중심의 역할비중의 평균은 3.9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보다는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다중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역할과 아내 역할에 대한 평가의 점수는 모두 5.5정도이었는데, 이는 어머니 역할과 아내 역할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평균 5.6으로서 조사대상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보통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직업만족도의 평균은 6.5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직장생활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정경제 기여도는 평균이 6.1로서, 조사대상자들의 수입이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다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정도는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생활만족도는 나이, 학력, 가계생활수준, 직업만족도, 큰 자녀나이, 결혼지속기간,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친밀감, 그리고 생성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거나, 가정경제 기여도, 자녀양육 부담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인다. 생성감은 나이, 학력, 가계생활수준, 직업만족도, 직업지속기간, 자녀양육 부담, 큰 자녀나이, 어머니 역할, 결혼지속기간, 아내 역할, 친밀감, 생활만족도 등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 ( $n = 262$ )

변 인	M (SD)
나 이(30-59)	40.6 (6.3)
학 력 <sup>a</sup> (1-6)	4.7 (1.0)
가계생활수준(SES) <sup>b</sup> (1-9)	5.2 (1.2)
결혼지속기간(1-36년)	14.4 (6.9)
자녀의 수(1-5명)	2.1 (0.7)
큰 자녀의 나이(1-30세)	13.3 (7.0)
직장생활지속기간(1-40년)	16.7 (7.7)
자신 중심의 역할비중 <sup>c</sup> (1-9)	3.9 (2.2)
어머니 역할 <sup>d</sup> (1-9)	5.5 (1.9)
아내 역할 <sup>d</sup> (1-9)	5.5 (1.8)
자녀양육부담 <sup>e</sup> (1-9)	5.6 (1.9)
직업만족도 <sup>f</sup> (1-9)	6.5 (1.6)
가정경제기여도 <sup>g</sup> (1-9)	6.1 (1.9)
자신의 건강 <sup>h</sup> (1-9)	5.8 (2.0)
남편의 건강 <sup>h</sup> (1-9)	6.0 (1.9)
자녀들의 건강 <sup>h</sup> (1-9)	6.6 (1.8)
친 밀 감 <sup>i</sup> (7-49)	36.5 (6.8)
생 성 감 <sup>i</sup> (18-126)	78.3 (14.7)
생활 만족도 <sup>j</sup> (1-35)	20.9 (5.0)

- a.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2년제대학 졸업 5=대학교 졸업 6=대학원 졸업
- b. 1(= 매우 낮은 편이다) ~ 9(= 매우 높은 편이다)
- c. 1(= 나보다 남편과 자녀중심이다) ~ 9(= 남편과 자녀보다 자신 중심이다)
- d. 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 9(= 매우 잘하고 있다)
- e. 1(=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9(=매우 힘들다)
- f.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g. 1(= 나의 수입이 없어도 가정경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9(=매우 힘들어질 것 같다)
- h. 1(=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9(=매우 건강한 편이다)
- I. 1(= 매우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중역할 특성 및 생성감의 매개역할

중년기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다중역할 특성들은 어떤 변인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특성들이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의 결과를 토대로 회로모델(path model)을 구하였다. 우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독립변인들은 인구통계학

<표 2>변연관변인들간의 상관계수3(n = 268)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나이	—													
* p < .05		** p < .01												
2. 학력	-.14*	—												
3. 가계생활수준	.06	.15*	—											
4. 결혼지속기간	.94**	-.20**	.07	—										
5. 자녀의 수	.38**	-.12*	.05	.42**	—									
6. 첫째 자녀나이	.93**	-.21**	.08	.97**	.48	—								
7. 자신 중심의 역할비중	-.07	.17**	.09	-.06	-.10	-.09	—							
8. 어머니 역할	.17**	-.10	.27**	.20**	.07	.20**	-.16*	—						
9. 아내 역할	.07	-.07	.34**	.11	.03	.11	-.21**	.49**	—					
10. 자녀양육부담	-.17**	.10	-.16*	-.18**	-.05	-.18**	.02	-.20**	.20**	—				
11. 직업 만족도	.20**	.13*	.27**	.17**	.04	.17**	.03	.21**	.22**	-.10	—			
12. 직업 지속기간	.80**	-.08	.06	.75**	.23**	.74**	-.14*	.06	.05	-.13*	.19**			
13. 가정경제기여도	-.01	.01	-.33*	-.07	-.03	-.07	-.06	-.12	-.15*	.31**	-.09			
14. 친밀감	.02	-.03	.36**	.03	.05	.04	-.10	.28**	.36**	*	.25**			
15. 생성감	.15*	.31**	.44**	.13*	.08	.13*	.03	.31**	.32**	*	.44**			
16. 생활 만족도	.14*	.18**	.62**	.14	.11	.15*	.04	.35**	.46**	*	.41**			
										.11	-.12			
											.37**			
												-.33*		
													.10	
														.55**

적 특성 및 다중역할 특성들인 나이, 학력, 가계 생활수준, 아내 역할평가, 어머니 역할평가, 자신 중심의 역할비중, 친밀감, 직업만족도, 직장생활 지속기간, 그리고 생성감 등이었다.

또 생성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은 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위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처리한 경우이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생활만족도는 6개 변인이 의미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표 3>에 제시된 결과는 조사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무선적으로

<표 3> 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표

변 인	$\beta$	Adjusted R <sup>2</sup>	$\Delta R^2$
가계생활수준	.32***	.39	—
친 밀 감	.27***	.52	.13
생 성 감	.20***	.56	.04
아내역할	.14**	.58	.02
가정경제기여도	-.12**	.59	.01
직업 만족도	.12**	.60	.01

$F(6, 249) = 64.9***$

\*\*  $p < .01$     \*\*\*  $p < .001$

로 선택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곧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그 6개의 변인은 가계생활수준 ( $\beta = .32, p < .001$ ), 친밀감 ( $\beta = .27, p < .001$ ), 생성감 ( $\beta = .20, p < .001$ ), 아내역할 ( $\beta = .14, p < .01$ ), 가정경제 기여도 ( $\beta = -.12, p < .01$ ), 그리고 직업만족도 ( $\beta = .12, p < .01$ )이었다.

<표 4> 생성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표

변 인	$\beta$	Adjusted R <sup>2</sup>	$\Delta R^2$
가계생활수준	.21***	.19	—
직업 만족도	.25***	.30	.11
학 력	.28***	.35	.05
친 밀 감	.19***	.38	.03
어머니 역할	.16**	.41	.03
결혼지속기간	.10**	.41	.00

$F(6, 249) = 30.9***$

\*\*  $p < .01$     \*\*\*  $p < .001$

아내역할과 가정경제 기여도는 생성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이었으며, 결혼지속기간과 학력 그리고 어머니 역할은 생활만족도를 직접 설명하지 못하고 생성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그림 2>를 토대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인과효과(효과계수)들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는 역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

생활만족도를 제외한 후 생성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서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생성감을 설명해 주는 변인은 가계생활수준 ( $\beta = .21, p < .001$ ), 직업만족도 ( $\beta = .25, p < .001$ ), 학력 ( $\beta = .28, p < .001$ ), 친밀감 ( $\beta = .19, p < .01$ ), 어머니 역할 ( $\beta = .16, p < .01$ ), 결혼지속기간( $\beta = .10, p < .01$ ) 등 6개이었는데, <표 4>의 결과는 조사대상자 전체중 일부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표 3>과 <표 4>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회로모델은 <그림 2>와 같다. 변인



<표 5>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효과계수 (n =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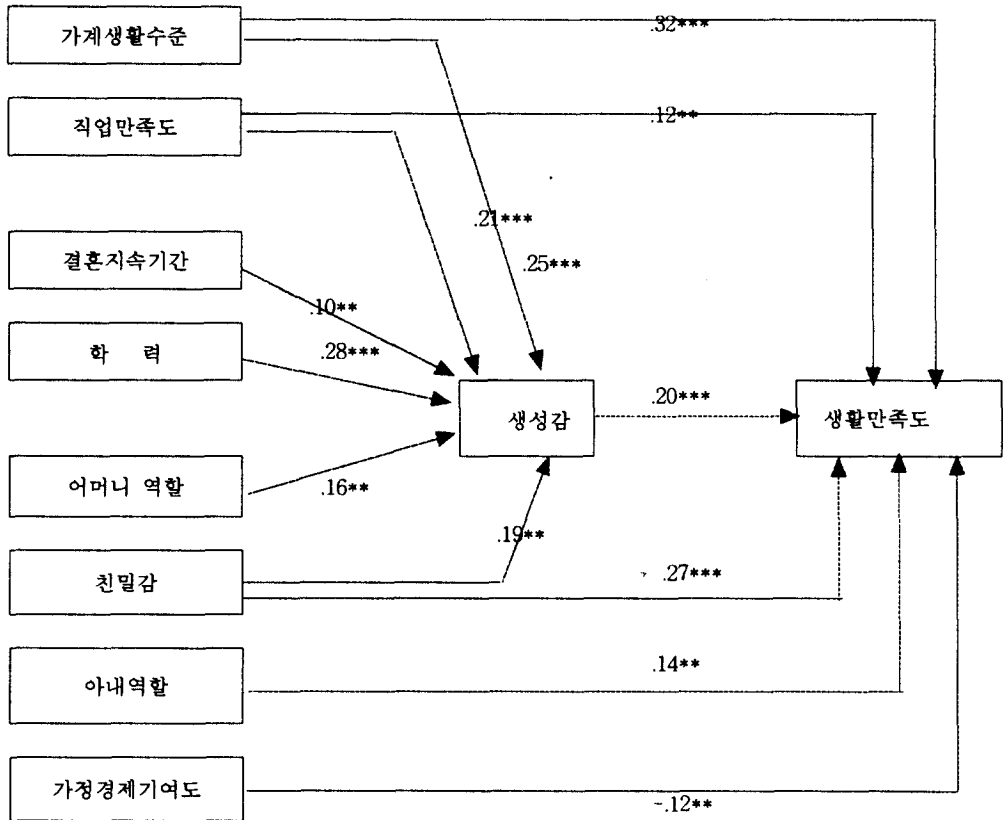
변 인	공변량 (A)	인과효과(B)		A - B
		직접효과	간접효과	
생 성 감	.25	.20	—	.05
가계생활수준	.38	.32	.04	.02
친 밀 감	.35	.27	.04	.04
아내 역할	.20	.14	—	.06
가정경제 기여도	-.17	-.12	—	.05
직업 만족도	.17	.12	.05	.00
학 력	.12	—	.06	.06
어머니 역할	.03	—	.03	.00
결혼지속기간	.05	—	.02	.03

들간의 관계를 일방향(unidirectional)으로 추론한 그 모델에 따르면, 가계생활수준, 직업만족도, 친밀감은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생성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인들이었다. 또는 각 변인들의 공변량과 그리고 공변량과 인과효과의 차이, 즉 비 인과효과의 크기도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변량이란 생활만족도와 각 변인들간의 부분상관계수를 뜻한다. 우선 인과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가계생활수준의 경우 공변량이 .38인데 비하여 인과효과는 .36(.32 + .04)에 해당되었다. 곧 가계생활수준의 경우 <그림 2>의 일방향 회로모델에 의한 인과효과는 전체 공변량의 거의 95%(.36/.3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과효과계수는 .04로서 전체 공변량의 약 10.5%를 차지하였다. 친밀감의 경우 인과효과가 공변량의 86%(.31/.3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과효과계수는 .04로서 전체 공변량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생성감의 경우에도 인과효과가 공변량의 80% (.20/.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다중역할에 관한 변인들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그림 2>의 일방향 회로모델에서 설명되는 아내 역할의 인과효과는 공변량의 약 70%(.14/.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내 역할의 경우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직업만족도와 어머니 역할은 일방향 회로모델에서의 인과효과가 공변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여 비 인과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직업만족도는 인과효과중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계수는 .05로 전체 공변량의 약 29.4%를 차지하였다. 어머니 역할은 인과효과 전체가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 해당되었다. 한편 직장생활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신의 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인과효과는 <그림 2>의 일방향 모델의 공변량중 약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 는 의

본 연구는 전일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에서



Note. 화살표 위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  $p < .01$  \*\*\*  $p < .001$

<그림 2> 다중역할 특성과 생성감,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로모델

50대까지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다중역할 특성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었다. 또 그 관계의 설명은 생성감의 매개역할을 토대로 인과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생활만족도와 생성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회귀분석의 결과들을 토대로 인과모델을 구하였다.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생활수준, 친밀감, 생성감, 아내역할, 가정경제 기여도, 직업만족도 등의 6개 변인이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성감을 종

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계생활수준, 직업만족도, 학력, 친밀감, 어머니역할, 결혼지속기간 등이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회귀분석의 결과들을 합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축차, recursive) 회로모델을 설정하였다.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공변량을 회로모델의 효과계수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방향 회로모델의 인과효과들은 공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이는 다중역할 특성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생성감이 매개한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임을 의미

한다. 회로모델에서 설명되는 8가지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다중역할 특성 변인들 중에서 가계생활 수준, 직업만족도, 결혼지속기간, 학력, 어머니 역할, 친밀감 등의 6가지 변인들이 생성감을 매개로 한 상태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곧 본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직장생활을 하는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생성감을 매개로 한 인과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본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성감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DeHann & MacDermid, 1995; McAdams 등, 1993; Vandewater 등, 1997). 친밀감도 역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친밀감과 생성감이 정적상관이 높은 상태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결과는 Erikson이론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McAdams 등, 1986).

중년기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은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머니 역할은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역할에 정성을 기울인 여성일수록 생성감이 높고, 생성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Peterson과 Klohnen (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McAdams 등의 연구에서도 성인기 중기에 해당된 부모들이 성인기 초기나 후기에 해당된 부모들보다 생성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McAdams 등, 1993). 반면 아내역할은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었지만, 생성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내역할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성감의 매개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MacDermid 등(1997)에 의하면, 여성들은 다중역할을 통하여 생성감을 경험하지만, 한국의 직장여성들에게서는 아내역할을 통한 생성감이 드러나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에 관한 영역 중 자신의 직업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직업만족도는 생활만족도나 생성감과 정적 상관이 높았으며, 생성감은 역시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직업만족도는 생성감을 설명하는데 어머니 역할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Peterson 등(1996)의 주장처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부모역할보다도 직장과 관련된 업무에서 생성감을 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들이 그 직장생활을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로 이끌 수 있을 때 그리고 직장생활의 자기 발전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부적으로 미치지만, 앞에서 설명한 아내역할처럼 생성감을 매개로 하지 않는 상태로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이 가계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각하고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또 자신의 수입 자체로부터 생성감을 형성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상태라고 해석된다. 한편 <표 5>를 보면, 가계생활수준이 다른 어느 변인들보다 생성감과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비중이 더 높다. 이는 가계소득 정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김명자, 1989; Baruch & Barnett, 1986). <표 2>에서 가계생활수준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할 때, 가계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머니 역할이나 아내역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기혼여성들의 다중역할 특성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Matire, Stephens, 그리고 Townsend (1998)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중년기 여성들이 그 역할의 상대들(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직장상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그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과 관련된 상대들(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직장상사 및 동료)이 이들을 자신의 지원자 내지는 조력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일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직장생활의 여부에 따라서 생성감의 발달이 약간씩 다르다고 한다 (Peterson & Stewart, 1996).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은 부모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장과 관련된 업무에서 생성감 동기를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부모의 역할이 생성감을 발달시키는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어머니역할은 생성감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에서 그리고 아내역할은 생성감을 매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생활만족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년기 여성의 생성감발달이나 생활만족도의 연구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기혼여성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김현화, 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201-228.
- 박경숙, 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에 관한 연구 - 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65-80.
-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Balatsky, G. & Diener, E. (1993). Subjective well-being among Russian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225-243.
- Barnett, R. & Baruch, G.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5-145.
- Baruch, G.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onstantinople, A. (1969).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 357-371.
- DeHaan, L. & MacDermid, S. (1995). Is women's identity achievement associated with the expression of generativity: Examining identity and generativity in multiple rol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 235-247.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erson, J. (1985). Women returning to school: The consequence of multiple roles. *Sex Roles*, 13, 77-92.
- Hawley, G. (198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Eriksonian measur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Dissertation Abstracts*

- International*, 45, 2804A.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elson, R., Elliot, T., & Leigh, J. (1990). Number and quality of roles: A longitudinal personality 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83-101.
- Kotre, J. (1984)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cAdams, D. & de St. Aubin, E.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03-1015.
- McAdams, D., de St. Aubin, E., & Logan, R. (1993). Generativity among young, midlife,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 221-230.
- McAdams, D., Ruetzel, K., & Foley, J. (1986). Complexity and generativity at mid-life: Relations among social motives, ego development, and adult's plans for the fu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00-807.
- MacDermid, S., Heilbrun, G., & DeHaan, L. (1997). The Generativity of Employed Mothers in Multiple Roles: 1970 and 1991. *Multiple paths of middle development*. In M. Lachman & J. James (Eds.) (pp. 207-24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ire, L., Stephens, M., & Townsend, A. (1998). Emotional support and well-being of midlife women: Role-specific mastery as a mediational mechanism. *Psychology and Aging*, 13, 396-404.
- Ochse, R. & Plug, C. (1986). Cross 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of Erikson's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40-1252.
- Peterson, B. & Klohnen, E. (1995). Realization of generativity in two samples of women at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0, 20-29.
- Peterson, B. & Stewart, A. (1996). Antecedents and contexts of generativity motivation at midlife. *Psychology and Aging*, 11, 21-33.
- Pietromonaco, P., Manis, J., & Frohardt-Lane, K. (1986).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0, 274-284.
- Reifman, A., Biernat, M., & Lang, E. (1991).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small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431-445.
- Reimanis, G. (1974). Psychosocial development, anomie, an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55-357.
- Shao, L. (1993). *Multilanguage comparability of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measures in mainland Chinese and America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Suh, E. (1994). *Emotion norms, values, familiar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Tronick, E.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Vandewater, E., Ostrove, J., & Stewart, A. (1997). Predicting women's well-being in midlif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 role invol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47-1160.

Wessman, A. & Ricks, D. (1966). *Mood and personality*. New York: Holt, Rienhart & Winston.

##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Role Characteristics of Employed and Married Women in Mid-Life and Life Satisfaction: Mediating Role of Generativity

Geum-woon Kim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 among multiple role characteristics of employed women in mid-life which could explain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generativity among those relations. Participants were 262 full-time employed married woman. To identify the relations and mediating rol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nd a path model based the analyses was drawn out. According to the model, socio-economic status, job satisfaction and intimacy explained directly life satisfaction and indirectly explained it when mediated by generativity. The variables such as wife role and contribution to domestic economics explained directly life satisfaction without a mediator generativity. The period of marriage, education and mother role did not influence directly but indirectly upon life satisfaction when generativity was employed as a mediator.